어떤 결혼식

"딴딴딴딴."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기는 10초 동안 음악을 틀더니 자동응답기능으로 넘어갔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안내가 끝나자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미연이에요. 지금 '플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와줄래요? 앞으로 두시간 동안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그 직후 전화기와 연결된 컴퓨터가 반응을 시작했다. 화면에 전화번호 목록이 주르륵 흘러가더니, 곧 지도가 나타났다. 지도는 계속 확대되면서 어떤 장소를 추적해 갔다. 마침내 화면이 멎었다. 확대된 지도 중앙에서 붉은 점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자 호텔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수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십분 뒤 그는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섰다.

"미연이라는 사람을 찾는데요."

카운터에서 이름을 말하자, 종업원이 자리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23인치 짜리 화면을 달고 있는 로봇이 앉아 있었다. 남수는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봇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수가 온 것이 불만인 듯했다. 남수도 기분이 나빠졌다. 그는 커피가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봐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로봇을 대신 내보내면서도 아직까지 커피숍에서 만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댁도 여기까지 걸어왔겠죠? 그 무거운 머리를 이끌고요."

그러자 화면에 붉은 계통의 색이 현란하게 스쳐갔다. 불쾌하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남수는 개의치 않고 말을 계속했다.

"물론 나 같은 진짜 인간과는 의사소통이 좀 어렵겠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이성적인지 감정적인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같은 걸 일일이 분석해야 할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당신은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화면에 내 행동을 그대로 담아 가면 당신을 보낸 사람은 쉽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로봇이 말을 했다.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였다.

영화 〈내 남자 친구의 결혼식〉

"그건 당신네 인간들이 늘어놓는 궤변이죠. 그건 불확실한 감정과 직관이 어떤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진실이죠. 누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만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불쾌하네요. 우리가 논리만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로봇이 화난 듯이 말하자, 남수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로봇은 논리 회로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기가 어려웠

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태생이 그렇기 때문이죠.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였고, 로봇은 감정보다 논리가 먼저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만났으니까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러자 화면이 전환되더니 뭔가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남수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피카소와 모네의 그림이 한 두 장면 지나간 듯했다.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로봇은 십여분 동안 화면을 보여주고 나서, 비웃는 투로 말했다.

"자, 잘 봤죠? 그럼 어떻게 전달해 줄 작정인가요?"

"그건 내 사정이니 상관하지 마시죠. 당신 일은 전해주는 걸로 끝이잖아요?"

남수는 그렇게 내뱉고는 먼저 일어섰다. 로봇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남수는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동영상으로 보내지 않고 테이프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구시대의 사람으로 낙인찍힐 테니까.

남수는 찍힌 것을 디지털화하면서 분석해보았다. 언뜻 보았던 그림을 비롯한 구시대 인간들의 그림 수십 장, 마찬가지로 오래 전의 영화 몇장면, 그리고 현란하게 추상화시킨 디지털 영상들. 남수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벌써 대리 미팅과 선을 수십번 봤지만,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자기가 중개한 커플 중 마음에 든다고 결혼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결혼식 자리에 한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남수는 메시지를 정성껏 분석하고 선명하게 다듬어서 보냈다. 이번 일은 거기까지였다.

며칠 뒤 남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대리 미팅을 의뢰한 고객이었다.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날 갑자기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 갈 일이 생겨서 대리인을 보낸 건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 일요일이 되자 남수는 결혼식에 가기로 작정했다. 도대체 그런 메시지를 받고 결혼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식장은 타워 빌딩 27층 사이버 예식장이었다. 예식장 안은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선 남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있는 것은 백남준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 온갖 화면과 스크린, 카메라들 뿐이었다. 스피커에서는 계속 환호성이 들려왔다.

"다음은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여기저기 화면에서 제각기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사회자의 모습, 신랑 신부의 웃는 얼굴, 행진하는 장면, 박수를 치는 하객들. 하지만 모든 것은 오직 화면상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진짜 식장에 있는 사람은 남수 뿐이었다.

남수는 화가 나서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갑자기 식장이 조용해졌다.

"누구야? 누가 방해하는 거야?"

여기저기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수는 신랑의 얼굴이 확대된 화면을 보며 말했다.

"제가 남수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만."

그 순간 신랑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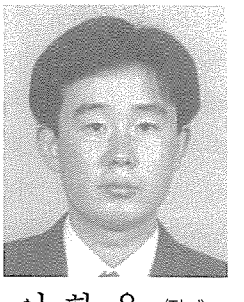
"저, 정말 당신이?"

남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갑자기 신랑이 입을 열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진짜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저 미연도 동의합니다. 인간이 개입되었다면 틀림없이 감정이 왜곡되었을 테니까요. 전 완벽한 의사 소통 상대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순식간에 꺼졌다. 그 와중에 남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의뢰를 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ST



이 한 음 〈작가〉